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4)

주제: 문학, 생명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4 회 강연에서는 성공대학교 중문학과 왕취령(王翠玲) 교수를 초청하여 「문학,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왕 교수는 「삶의 맛(生命的滋味)-좋은 시작과 끝(마무리)」, 「평범한 기적-생명은 기적이다」, 「삶(죽음)이 있기에 죽음(삶)이 있다」. 세 가지의 비유를 제시하여 본 강연의 「문학, 생명」 향연의 주축을 예고하였다. 왕 교수는 문학과 유석도(儒釋道/유교, 불교, 도교) 삼가(三家)의 관점에서 생명을 탐구하고 그 사이 비디오편을 삽입하여 생명을 깊게 탐구하였다. 왕 교수는 이번 강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라고 하였다.

「문학과 생명」의 정의

먼저 세 가지의 관점으로 문학을 정의할 수 있다.

- (1) 문(文): 문자, 문학, 문화, 문명
- (2) 학(學): 학습(習)→온고(溫故)·지신(知新)
- (3) 문학: 표현, 발화의 매개체
 - 구전, 도형(圖形), 결승기사(結繩記事), 상형문자, 시, 문학…….
 - 예술, 다원 문화의 표현
 - 순수문학(純文學), 협의의 문학, 광의의 문학
 - 2016 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Bob Dylan)에게 "미국의 전통 가요를 통해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고 하였다.

"생명"을 정의할 때, 왕 교수는 먼저 "생명"이 문자 그대로 생존(生存), 생활(生活), 생(명(命))과 태(도(度))임을 설명하였다. 곧이어 「생명의 형식과 진화」, 「생명의 의미와 궁극적 관심」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생명」의 형식과 진화

먼저 유형(有形) 및 무형(無形)의 관점에서 생명을 설명하였다.

- ① 유형(有形): 구상(具象)(구체적으로 보이는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유형(有形)은 보기 쉬우나 무형(無形)은 어렵다. 무형(無形)은 충분한

상상력이 있어야 하며, 틈새에서 생존을 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유형(有形)의 안팎의 세계를 하나의 작용으로 만들어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의 두 세계를 연결하는가이다.

② 무형(無形): 추상(허공, 혼돈, 무극(無極), 태극(太極))

류안(劉安)<회남자(淮南子)>: 왕고래금위주지, 천지사방상하위지우(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것을 주(宙)라 하고, 천지사방과 위아래를 우(宇)라 한다.) 여기서 우(宇)는 공간을, 주(宙)는 시간을 의미한다.

왕 교수는 시간은 길고 짧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한정되고, 삶과 죽음이 있다고 하였다. 공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공간을 관통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에게 보호이기도 하나 한계이기도 하며, 유한한 시공간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생명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 폭과 높이, 밀도를 더욱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왕 교수는 독일의 미술평 세프 도르트 쉬퍼(Dorte Schipper)와 하버드 경영대학 크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를 예로 들어 생명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왕 교수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인생을 탐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인생에 있어 종종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좌절이 많을수록 용감해진다. 매번의 행운에 감사해야 하며, 매번의 고난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행운과 고난 모두 삶의 필수 요소로, 한정된 시공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생명」의 의미와 궁극적 관심

생명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왕 교수는 생명은 영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생명의 영속 경영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 가치관: 평가, 주류(主流)

(2) 자아(自我): 소아(小我), 대아(大我), ◇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3) 통찰: 지피지기(知己知彼) ◇ 혼돈

우리는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 통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기 중심적이라면 스스로에서 출발하여 외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他人)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다양한 삶의 전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의견을 들을 것인가,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이다. 이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생은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선택할 수 없고, 일분일초 모두 자신이 느끼는 것이다.

자아(自我)는 매우 중요하다. 소아(小我)부터 대아(大我)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전염병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밀접 접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지, 자신의 위치에서 생명의 원심(圓心)을 하나하나 그릴 수 있는지, 이때의 통찰력은 우리의 원심(圓心)이다.

생명-천지인

옛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천자문(千字文), 삼자경(三字經), 유학경림(幼學瓊林) 등을 배웠고, 생활 환경에서 알 수 없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을 배웠는데, 이는 모두 서로 영향을 미쳤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은 유가(儒家)에서 사람에 대한 기대이다. 도가(道家)의 궁극(終極) 목표는 사람이 허공(虛空)과 함께 장수하고, 장생불로(長生不老)하는 것이다. 불가(佛家)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을 가지며, 본래 청정심(淸淨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작게 그럴 의향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작은 것은 어떤 생명과도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크게 될 수 있다. 유석도(儒釋道/유교, 불교, 도교) 삼가(三家)는 저마다 받은 바가 있어 모두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자신을 경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경홀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소아(小我)(개인)→집단자아(群體我)→대아(大我)」이다

이는 왕 교수가 생명관에서 표현한 「생존(生存), 생활(生活), 생명(生命), 생태(生態)」이다.

(網頁連結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 涂玉璫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